

제13강 유전자와 영원회귀 II

(1교시)

※ 학습목표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을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을 통해 극복함을 이해한다.

▲ 유기적 신체와 ‘탈기관체(기관 없는 신체)’

바이스만의 구분은 들뢰즈에 와서 사랑하고 죽는 신체와 싹트는 강도(germinal intensity)를 통해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운동의 구분이 된다.

탈기관체는 특이성들과 강도들을 포함한다.

① 신체 : 자기의 동일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바이스만의 체세포에 해당.

싹트는 강도라는 것 : germinal은 베르그송의 엘랑(elan)과 통하는 개념.

싹트는 강도를 통해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운동 : 영원회귀

② ‘탈기관체(기관 없는 신체)’ : 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생성하는 그런 의미. 지금 현재 우리 몸은 기관화 되어 있지만, 무한히 자유롭게 기관화 되는 것을 의미

③ 특이성들(.singularity)은 예컨대 우리 몸은 간, 심장, 허파 등이 있는데 간이 될 수 있는 특이성이 현실화 된 것이 간. 그런데 현실화 되지 않는 특이성도 많이 있음. 그리고 특이성이 현실화 될 때 어떤 것이 현실화 되느냐. 그럴 때 강도가 문제가 됨.

들뢰즈가 『수인』의 주인공을 기차 자체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셸 세르가 『수인』을 ‘엔트로피적 서사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엔트로피 개념이 궁극적인 개념일 수 없다고 본다.

엔트로피 개념은 ‘시간의 화살’이라는 상식적인 시간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들뢰즈의 유전 : 균열 그 자체

균열(la fêlure)은 병든 유전을 위한 통로가 아니다. 균열이 유전적인 것이자 병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전되는 것과 이전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

① 정상적인 유전이 있고 비정상적이 유전이 있어서 비정상적인 유전이 균열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유전 자체가 균열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 균열의 유전과 죽음본능

들뢰즈는 균열의 유전을 죽음본능과 연결시킨다. 이는 곧 차이와 반복의 차원에 죽음이 함축되어 있음을 뜻한다. 프로이트의 죽음본능은 (들뢰즈가 재정식한)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을 통해 극복된다. 즉 상속과 유전(기원과 계보학)은 탈영토화(형식과 기능의 변화)에 복속된다.

①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은 결국은 과거로 끊임없이 회귀해서 마침내는 원초적인 무기질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 자기 나름대로 죽고 싶은 욕망, 고유하게 죽고 싶은 욕망인데. 프로이트의 그런 욕망은 차이를 동반하는 반복.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라고 하는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을 통해 극복됨.

② 동일성이 줄곧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바이스만적인 유전학. 또는 거꾸로 동일성이 유전되는 미래고 끝없이 회귀한다고 하는 프로이트적 생각.
그런 생각은 탈영토화(그런 동일성의 체계를 와해시키는)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임

▲ 죽음본능 : 동일성에의 욕망

무기물로 돌아가려는 유기체의 욕망이라는 개념은 그리로 돌아가야 할 죽음의 본래적 모델이 있음을 전제한다. 즉 하나의 죽음(죽음-일자), 죽음의 진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죽음본능은 동일성(니르바나)에의 욕망을 함축한다.

① 죽음의 원형- 죽음의 본래적 모델.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게 아니라 죽음의 본질이 있다는 것. 즉 하나의 죽음. 죽음 일자. 모든 생명체가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존재로서의 일자. The one. 또는 죽음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을 말함.

② 동일성(프로이트의 말로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불교 용어이지만 프로이트의 니르바나는 정신분석학적인 해탈. 그것은 결국 무기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름.

▲ 죽음본능의 극복 : 영원회귀의 차이와 반복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가 아닌 차이 자체(차이의 운동 = 差生)를 생각함으로써, 즉 영원회귀를 차이와 반복으로 해석함으로써, 프로이트의 죽음본능을 극복할 수 있다.

①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대문자 A로부터 소문자 a1, a2가 나누어질 때, a1과 a2의 차이는 대문자 A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가 아닌 **차이 자체, 베르그송적인 elan**을 말함

②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을 극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낭만주의적인 극복은 아님.
베르그송이나 들뢰즈의 생각은 낭만주의와 미묘한 갈등.

·낭만주의 : 서구에서 기계론에 대한 반동. 기계론적인, 죽어 있는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완벽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생명이 탈락된, 그런 게 아니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목적성이나 가치가 그 안에 이미 들어 있는게 낭만주의적 자연관.

괴테가 대표적. 괴테는 문학가이면서 방물학자. 그리고 빛, 색에 대한 연구도 유명. 일종의 자연학자.

계통학적인 자연관이 17.8세기 기계론적인 자연론에 대한 반동.

자연철학은 유교적 자연관과 어찌 보면 비슷. 사상사적인 이상은 유교적 자연관과 비슷함.

베르그송, 들뢰즈는 그러한 낭만주의 같지만 전혀 다름. 목적성이나 목적론적 가치니 정신성 등이 일체 없음. 어떤 우발적 사건. 기계론보다 더 냉정한 사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어떤 가치체계에 맞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대로 긍정함.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계론까지 분석. 똑같은 균열의 결과. 어느 것이 정상인지 알 수 없는 것.

·그런 식의 세계관이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인 것.

어떤 법칙성도 **apriori**한 질서도 목적성도 가치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성. 그렇게 된 것.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것. 끝없이 그렇게 되돌아감. 똑같은 것의 되돌아움이 아니라 그런 생성 밖에 없다는 것. 생성이 반복된다는 것.

그런데 생성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거기에 동일성이 존재함. 동일성을 부정하는게 아님. 동일성이 엄연하게 존재함. 그것은 그저 생성 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복되는게 있음. 그와 동시에 완벽하게 반복되는 것도 없음. 결국 그런 차이와 반복의 운동이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이나 바이스만의 이기적 유전자적 생각을 논박하는 것.

▲ 영원회귀의 진정한 주체는 강도들과 특이성

① 그럼 뭐가 돌아오느냐? 뭐가 반복되느냐? 할때..그것은 누가, 무엇이가 아니라 강도들과 특이성들이 계속 생성되는 것.

② 이런 들뢰즈의 사유를 플라톤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은 너무 넓어서 그런식으로 규정하면 플라톤적인 아닌 사람이 없음.

마치 이데아 세계는 영원히 있고 그것이 물질에 구현됨으로써 지금 이 세계가 있는 것. 그런식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음.(특이성과 강도가 잠재성으로서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고 그것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구현되는 것.) 그런 점을 보고서 들뢰즈가 플라톤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생각임.

(2교시)

① 생명에 대한 사고가 가지는 문제점

·존재론적으로 심오하고 설득력 있지만 정치학, 윤리학에서의 주체성. 책임 주체와의 문제가 있음

·사회과학이나 역사학. 문학 등은 아주 구체적(특정인물, 고유명사에 대한 것들).

반면, 자연과학이나 형이상학은 이 세계를 떠난 문제의 이야기(원자, 세포 등)

·문학이나 역사나 사회과학은 이런 단계들을 전제하고, 개체화 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철학이나 자연과학은 만족 못함. 생물학은 '이성이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포다 뭐다 더 파고들어감.

·존재론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깊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에는 영원히 완벽하게 화해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음.

동양으로 말하면 도가나 불교는 존재론적인 담론이고 현실 담론.

서로 완벽하게 만나지는 않더라도 가깝게 가는 것은 필요함.

▲ 일자의 회귀

동적인 개별화하는 요인들은 자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자는 회귀할 수 없다.

① 들뢰즈의 주장에 따르면 차이를 머금은 것만 회귀할 수 있음. 그 이야기는 차이를 머금은다는 것은 그만큼 강도가 작동하는 것.

예> 강의 하는 사람이 매 학기 똑 같은 강의만 하면 학생들이 안 들음. 새로운 강의를 동반해야 학생들이 좋아함. 차이를 동반하지 않으면 제거. 사라짐

▲ 발산하는 계열들과 포괄적 선언(選言)들의 회귀

① 발산 내지 선언은 갈래지어지는 것. 영어로 or.

예> 남자와 여자 → 남자 or 여자. 그것이 선행.

그런데 남자 or 여자 라고 하는 것은 주체 입장에서 볼 때 선택을 함축.

들뢰즈, 가타리는 선행을 긍정적인 사유임.- 빵과 책은 and.(빵 먹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or 일 수 밖에 없음. 그 or 을 긍정적인 사유. 선행을 긍정적인 사유.

② 존재론적으로는 멋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고 선택할 시점에선 전혀 도움이 안됨. 아주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으로는 모든걸 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되 현실 삶 속에서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함. 그럴 때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근거를 어떻게 딸 수 있는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됨.

▲ 디오니소스의 원한

디오니소스의 원한들에서 예수는 돌아오지 않는다. 안티크리스트의 질서가 다른 질서들을 쫓아버린다.

① 디오니소스의 원한들은 수렴하고 통합되고 매끈하게 정리되는 원한이 아닌 춤추는 식의 원한

②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란 책이 있음. 어찌 보면 예수도 디오니소스적인 사람. 예수를 내가 교주로 모시고 신처럼 만든 사람들이 반 디오니소스적.

▲ 자아의 동일성

자아는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고 강도 높은 복수성과 변신의 역능이 활동한다.

- 자아라는 identity가 무너지고 intensive multiplicity가 작동하고 내가 변신하는 그런 역능이 활동함.

(자아의 동일성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아가 해체되는 것도 문제.

내가 철학 선생으로서 identity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날 전혀 다른 암흑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건가? 동일성을 무시할 수 있는가? 어려운 문제)

▲ 영원회귀의 반복

영원회귀의 반복은 죽음을 내포하지만, 이것은 죽음본능이 아니라 선별에 의한 죽음이다. 때문에 영원회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연관된다. 미래란 여럿인 것, 다른 것, 우연적인 것의 접힘과 펼쳐짐이다. 영원회귀는 일자에 대해 선별한다.

① 이때 죽음은 프로이트가 말한 그런 죽음본능이 아님. 차이를 머금은 것만이 회귀하고 차이를 머금지 못한 것들은 죽는 그 죽음을 말하며 그 죽음을 영원회귀는 내포함.

② 영원회귀라고 하는 것이 베르그송이 말한 엘랑, 생성과 창조지만 얼핏 듣는 것만큼 로맨틱한 엘랑이 아니라 죽음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잔혹하고 냉정함. 선별에 의한 죽음임.

③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이 과거로 회귀하는 본능이라고 한다면 영원회귀에 내포된 죽음은 어떤 것들은 죽고 어떤 것들은 살아서 다시 영원 회귀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음.

④ 영원회귀는 일자-동일자(프로이트의 죽음 본능, 바이스만의 생식질 이론이 의미하는 동일성)에 대항에서 선별을 한다.

▲ 강의 마무리

주로 생명체에서의 동일성 역할, 개체화 문제(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 잠재성, 탈기관체 등을 보일 수 있는 개체들이 생성되는 그런 무한한 균열이 존재하는 그런 데서 일정한 개별성이 나오는가, 반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회귀의 문제까지 살펴 봤음.

중간에 몇 번 이야기한 자연과 가치의 문제. 존재론과 사회철학의 문제. 그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할 문제임.